

# 국민의당 제3당 '비례' 최다기록 깬다

### 지지율 17%로 급등...목표치 10석 가능할 듯

### 17대 첫 도입후 민노당·18대 친박연대 8석 기록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제 3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최다 기록을 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총선 투표일을 이틀 앞둔 11일 국민의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국민의당은 공식 선거전 시작 전만 해도 지지율이 10% 안팎에 머물러 비례대표로 5, 6석을 얻을 것이라 예상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10% 중후반대로 급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을 조사한 결과(4월 1주차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 응답률 18.5%), 새누리당 36%, 더불어민주당 18%, 국민의당 17%, 정의당 9%로 나타났다. 이 지지율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새누리당 21석, 더민주

11석, 국민의당 10석, 정의당 5석이다.

또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P, 응답률 9.5%),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28.4%, 더민주 21.7%, 국민의당 16.9%, 정의당 4.4%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새누리당 19석, 더민주 14석, 국민의당 11석, 정의당 3석으로 계산된다.

그동안 제3당의 비례대표 최다 기록은 8석이다. 현재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첫 도입된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은 당시 비례대표 56석 중 열린우리당 24석, 한나라당 21석에 이어 8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새천년민주당은 4석에 그쳤다. 민노당은 당시 지역구 의석이 2석 뿐이었지만 이의 4배에 달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더해 두 자릿수 의석수를 채우고 원내 3당으로 도약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박근혜 정당'을 표방한 친박연대가 54석 중 8석을 얻어 두 번째 돌풍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22석, 통합민주당이 15석을 차지했으며, 친박연대에 이어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각각 4석, 3석, 2석을 얻었다.

정의당은 기존의 3번 지위를 국민의당에게 내준 데 이어 비례대표 투표까지 국민의당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대·소선거구제 하에서 왜곡된 의석을 보정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친 뒤 정당별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전국구 제도가 워낙 결정을 받은 뒤 17대 총선부터 정당 투표를 따로 하는 정당명부식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홍걸 "더민주 지지해달라" 4·13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가운데) 국민통합위원장과 광주지역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권노갑-김홍걸 또 'DJ 적통' 신경전

### 권 "이희호여사가 국민의당 입당 허락"...김 "그런적 없어"

4·13 총선을 이틀 앞두고 호남에서 'DJ(고 김대중 대통령) 적통'을 놓고 동교동계와 DJ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김위원장은 11일 동교동계 좌장인 국민의당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해 "어머니(이희호 여사)는 현실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분들에게도 입당해라 탈당해라 하신 적 없고 소신껏 알아서 하라는 말씀밖에 하시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권 전 고문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고 하셔서 제가 지난 달 (어머니께) 한번 여쭙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권 전 고문은 남일 지원유세에서 "국민의당이 김대중당이며, 김대중당이 국민의당"이라며 "이건 비화(秘話)인데 박지원 의원과 함께 이희호 여사를 만나 '안철수당' 입당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전 고문이 '비화'라는 단어를 써가며 한 발언은 동교동계의 국민의당 행은 이 여사의 동의하에 이뤄졌기에 국민의당이 DJ의 적통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권 전 의원의 발언을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

## 김종인 수억대 금보유 논란

### 새누리 "서민 논란 자격 없다"

### 더민주 "모든 재산 투명 신고"

새누리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금)과 고급시계 등 고가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지적하며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안행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선관위 공식선거운동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대표가 금 8.2kg(약 3억2000만원어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수저 김 대표가 경제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 대표가 지난 9일 대전 유세 때 착용한 시계가 수천만원에 호가하는 고가 브랜드의 제품이라고 했다"며 "말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사는 저 얼굴의 야당지도자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한 내역을 놓고 선거 막판에 마치 무슨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하는 저 의가 아주 치졸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대표의 독일제 고가 시계 착용 논란과 관련하여도 "시계만 해도 유학시절 기술사를 함께 썼던 독일인 의사 친구가 선물한 것으로 20년 동안 한결같이 차고 다닌 것뿐"이라며 "마치 고가의 호화명품을 새로 구입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4·13 총선 현장

### 김영록, 윤영일 선거홍보물 합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1일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에 대한 선거홍보물에 대한 합성사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이 제작배 포함 선거공보 중에 안철수·주승용·전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 윤 후보 등 5명이 도열한 사진이 게재돼 있는데, 이 사진이 이른바 짜깁기한 합성 사진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 선대위 측은 "허위사실유포로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법적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천정배 "호남주도 정권교체 신평탄 싹달라"



국민의당 천정배(광주 서구 을) 의원은 11일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신평탄을 싹아주 시킬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이날 호소문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특권·패권세력인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는 한편, 호남주도 정권교체로 상생의 대동세상을 여는 대장정의 첫날이 되어야 한다"며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해야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으며 호남의 정치가 힘을 기질 때 호남의 경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박준영, 이틀간 3개 군 릴레이 유세



국민의당 박준영 영암·무안·신안 후보는 11일 48시간동안 3개 군에서 유세하는 '483 릴레이 유세'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박지연(목포) 의원과 목포 김대중 광장에서 합동 유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화해와 용서, 평화와 자유, 인권, 민주주의, 지역감정 해소, 남북 화해협력 등 김대중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의원은 이날 박 후보 지원유세에서 "박준영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보장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그 능력을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문화예술계·청년 2016명 "송갑석 지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후보는 11일 광주 서구 전·현직 시·구의원, 문화예술계, 청년 인사 2016명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지인사 2016명은 "송 후보는 정치입문의 기회에서 몇 차례나 부당하게 배제되었으나 좌절하지 않고 '광주가 기다려온 정치'를 준비해왔다"면서 "바른 정치와 정치가 만들어 내는 긍정의 가능성을 실현시켜 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민 여러분께서 현명하단 마음으로 송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믿는다"고 밝혔다.

### 정준호, 광주시장에 복구 발전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후보는 11일 윤장현 광주시장에 광주 균형발전을 위해 북구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후보는 서한을 통해 "북구는 광주 전체 영구임대 아파트 10곳 중 5곳이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비율에서도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어서 경직성 예산인 복지사업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곳인 만큼 복구 재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운태 옥중서신 "인물중심 투표률"



옥중출마를 한 무소속 강운태 광주 동남갑 후보는 11일 옥중서신을 통해 "이번 선거는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인물중심의 투표가 되어야 하며 광주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2004년 탄핵동풍으로 열린우리당에게 물표를 주었던 경우와 2014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전략 공천을 통해 안철수 대표에게 속은 경우처럼 다시는 광주가 희생당하는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 잘하는 강운태를 살려줄 분은 시민여러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중소상공인 413명 '이병훈 지지' 선언



광주지역 중소기업인 413명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광주 동남 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깨끗하고 유능한 이병훈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면서 "현역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본인이 지역경제를 살릴 책임자라고 주장하지만 갈수록 손님은 줄고 폐업하는 가게는 늘어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 손금주 "혁신도시에 글로벌 교육과정 도입"



국민의당 손금주 나주·화순 후보는 11일 나주 혁신도시 유세에서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빛가람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와 ICT(창조경제)를 통한 글로벌 첨단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교육여건 증설, 명문 자립형 사립고 유치, 에너지밸리를 연계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정을 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용빈 "현역 다선의원 무능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주 광산 갑 후보는 11일 "박근혜 정권의 서민경제파탄과 현역 다선의원의 무능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잃어버린 8년 동안 가계부채 사상최악,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행 등 국민은 고통 속에 살았다"며 "선거 때만 투표를 읍소했던 현역의원들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내몰릴 동안 서민 곁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특히 "여당 독주에 일조한 현역의원들이 엄지없이 국민의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정권교체를 부르짖는다"며 모순을 꼬집었다.

### 김하중 "4월13일은 광주정치 바꾸는 날"



무소속 김하중 광주 서구를 후보는 11일 지역구 유세에서 "4월13일은 광주정치를 바꾸고, 국민의당이 중심 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서구를 유권자들과 저 김하중이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는 27년간 검사로, 국립대 교수로 봉직하면서 비겁하게 살아오지 않았다"면서 "지금 광주에는 거대한 얘기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구태 정치인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공공의 이익에 헌신해 온 김하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권일기자 cki@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 ▶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